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명품 남도 음식거리'로 새 단장

'2023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쾌적·친절한 음식 문화, 특화 거리 조성

남도 전횡상을 대표하는 '숙성 흥어' 본고장인 나주 영산포의 흥어 거리가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음식 거리로 새 단장에 나선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2023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영산포 흥어거리가 최종 선정돼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는 도내 음식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라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공모에 참여한 22개 시·군 중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 등 적격 여부를 거쳐 나주시와 여수시를 선정했다.

나주시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까지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제고에 중점을 둔 영산포 흥어거리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맛의 고장' 남도, 다시 찾는 영산포 흥어'를 비전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 특화 콘텐츠 설치, '친절 문화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보행자 친화 가로경관 개선, '소규모 무대 및 포켓정원 조성, '공공 와이파이 구축, '특화 디자인 가로등, '트리아트·포토존' 등을 설치한다.

여기에 친절 교육 및 메뉴 개발 전문가 컨설팅, 외국어 번역 앱 사용법 교육 및 번역 메뉴판 제작, 웨이팅 앱(App)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남도 음식 거리로 탐바꿈할 영산포 흥어거리는 영산포 등대·일본인주거역 등 영산포 근대문화유산, 영산강 자전거길·황포돛배와 같은 관광자원과 연계해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도 대표 음식인 영산포 숙성 흥어를 느끼고 즐기며 맛있는 명품 음식 거리로 조성해 침체된 영산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친절한 외식 환경과 다시 찾고 싶은 영산포 흥어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주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환 박차

화순군은 화순읍 주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 및 차량 지·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과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교차로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설계용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비 7억 5천만 원, 군비 20억 5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위치는 화순군청 앞 오거리, 남산 북문 앞 삼거리, 고인돌 전통시장 앞 사거리, 현대요양병원 앞 삼거리, 화순장례식장 앞 사거리 등 5개소이다.

이 중에서 화순군청 앞 오거리는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산 북문 앞, 현대요양병원 앞, 화순장례식장 앞 교차로는 8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고인돌 전통시장 앞 사거리는 현재 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 교차로의 지형 여건 및 현황에 맞는 최적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마을 특색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11개 마을에 엘이디(LED)형 포함 684개소 부착



담양군, '담양형 향촌돌봄' 추진계획 공유 간담회 추진

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담양형 향촌돌봄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공유,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촌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1차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보완해 오는 28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민관 협의체와 함께 '담양형 향촌돌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간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새로운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반드시 실현해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이 11개 마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율형'으로 새롭게 설치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주변 환경과 건물 외관을 고려해 번호판 재질, 크기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번호판이다.

장성군은 장성을 미락단지, 황룡행복마을 등 11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총 684개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별 대표장소에는 엘이디(LED)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했다.

낡은 번호판을 교체해 주소 확인이 한결 수월해진 것은 물론, 미관 개선 효과도 뛰어나다.

주민 박모 씨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라며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호평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수설치 분야에서 2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마을 고유의 개성과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카카오모빌리티,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

9월 공유자전거 200대 도입 운영

구례군은 16일 썬카카오모빌리티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위한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황태선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과 썬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9월부터 일반형 공유자전거 200대로 카카오톡·타이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례읍사무소, 구례의료원, 공설운동장 등에는 생활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하고, 섬진강대나무숲길, 수달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유자전거는 구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구례를 여행할 수 있게 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